

“새해에는 보다 체계적인 雲庭 아카이빙을 실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자로 운정 겨울호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23일 국가기록원에서 재단이 설립이 인가된 이후 3월 10일 열린 김종필 증언록 출판 기념회에 맞추어 창간호를 발간한 후 4번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발행된 “雲庭”지는 어떤 내용으로 지면을 채워 갈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두 번은 몰라도 정기간행물로 운정의 동정을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연재해 나갈 수 있을지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雲庭”지는 재단명의 영문 표기가 “JP Archives Foundation”이 의미하는 바대로 “雲庭”이 소장하고 있던 사료를 정리하여 계속 발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 입니다. 여름 호에 군, 안보관련 자료에 이어 가을 호부터 시작된 雲庭의 외교활동사는 미국 편에 이어 이번 겨울호에는 일본 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재는 앞으로도 동남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편으로 내년에도 계속 연재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카이빙은 재단이 소장하고 있던 기록물들을 엮어 내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사료들도 계속 발굴되고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김충석 전 여수시장이 지난 1960년대 병무청 재직시 폐기 직전의 인사기록철에서 떼어낸 雲庭의 증명사진을 53년간 보관해 오다가 이번에 저희 재단으로 기증해 왔습니다. 본지 105면 하단에 군번이 새겨진 확대한 사진과 함께 자그마한 사진은 雲庭의 청년장교 시절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개개인의 관심과 협조가 재단의 아카이빙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호에는 운정의 일본관련 외교사 50년을 사료와 함께 사진들을 정리하였고 특별히 재일 사학자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정구중 동서대 석좌교수, 허문명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한일관계에 관련된



김 진 봉
(재)운정재단 이사장

귀중한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雲庭지를 위해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필진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40년 만에 다시 보는 연하장>이란 제목으로 1976년부터 1978년 3년간 雲庭이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들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1976년은 雲庭이 국무총리를 그만둔 (1975.12.19. 국무총리 사임) 그 이듬 해이고 1979년은 그해 11월 공화당 총재로 선임되기까지의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雲庭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만 지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기간 雲庭이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들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문화나 풍물을 엿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와 함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백 점의 자료들을 다 실을 수 없어 게재하지 못한 자료들은 홈페이지 (www.kimjongpil.com)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호 말미에는 저희 재단 김상윤 감사가 시사저널 심상기 회장 앞으로 보내는 공개서한을 실었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시사저널의 보도는 고향 후배인 시사저널의 심상기 회장이 인사차 자택을 방문하여 1층 접견실도 아닌 2층 침상에서 간편한 차림으로 일행을 맞아 환담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기사로 엮어 보도한 것입니다. 그것도 「김종필 전 총리 단독 인터뷰」라는 카버스토리로 내용을 왜곡되고 불편부당하게 게재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노정객老政客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석자가 관련된 내용의 경위와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의 오해가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6년에 운정재단을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새해에는 보다 체계적인 雲庭 아카이빙을 실행하여 기록문화의 창달과 雲庭의 기념사업에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31일